

## KSASF 2일차 소식!

## Day 3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태양전지를 탐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주제탐구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참가자들, 대항전 경기중 도우미 얼굴 그리기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유기화학실험실에서 오진호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

KSASF 2016 개막 2일차인 어제 주제탐구 활동과 더불어 학교투어, 친교활동이 진행되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걸쳐 진행된 주제탐구활동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연료전지 자동차와 태양광 충전 전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산출물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학생 참가자들은 직접 실리콘과 아크릴 부품을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의 환원 반응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연료 전지 셀(cell)을 만든 뒤 소형 DC모터를 연결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외부 동력 없이 자체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며 성취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 초등학생 참가자들은 태양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솔라셀을 활용하여 외부 동력 없이 태양빛으로 충전이 가능한 소형 전등을 만들어보며 에너지 자립의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기술에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진행된 학교 소개 및 투어에서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만이 가지는

연구 중심, 국제화, KAIST 연계 등의 강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소개를 맡은 학생의 시간표를 함께 보며 평소에는 알기 힘들었던 실질적인 교내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소개와 함께 참가자들은 교내의 여러 실험실과 천문대 및 예지관을 둘러보며 연구활동과 문화 활동이 한데 어우러져 본교의 특색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피자와 함께한 저녁 특식 후에는 체육관에서 16개 생활조간의 치열한 대항전이 펼쳐졌다. 이날 대항전에서는 일련의 미션을 통해서 점수를 얻는 단계와 획득한 점수로 다른 팀들을 공격하거나 예감되는 다른 조의 공격을 수비하는 공방전의 단계가 번갈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점수를 얻기 위해 열심히 임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 친구들과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다양하게 구성된 미션들로부터 재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항전이 종료된 이후에는 조별로 식당으로 이동해 준비된 간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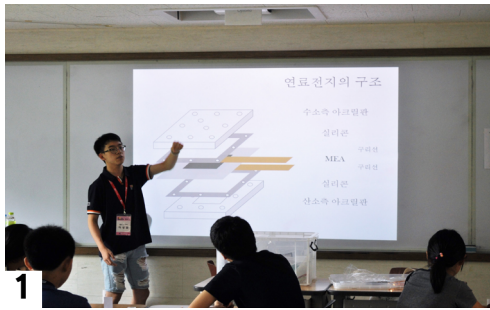
- \*일정표\***
- 09:00~11:00  
포스터 발표 (본관)
  - 11:30~12:30  
점심식사 (식당)
  - 13:00~18:00  
과학체험활동 (형설관 2~4층)
  - 18:00~19:30  
저녁식사 (식당)
  - 20:00~21:50  
환송의 밤 (체육관)
  - 22:00~22:20  
친교활동-다과 (식당)
  - 22:20~  
취침 (생활관)
- \* 일정은 적힌 시간과 다르게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점심]**  
야채볶음밥/브로컬리로마노스프/슈시 햄  
빅스테이크&소스/치킨도퍼야/새우튀김&  
케찹/배추김치/음료슬러시/복숭아
- [저녁]**  
모짜렐라치즈불고기버거/치킨너겟머스타드/줄리엔컷&스마일포테이토/수제쿠키  
3종/음료슬러시/자두  
\* 식당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보는  
KSASF



1



4



2



3



5



6



7

1)연료전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허성범 도우미 2)연료전지를 만들고 있는 참가자들 3)태양광 랜턴을 만들고 있는 참가자 4)제작한 연료전지 자동차를 시험해보고 있는 참가자 5)참가자들에게 창의공작실을 안내하고 있는 이주홍 선생님 6)천문대에서 망원경 관측체험을 하는 참가자들 7)대항전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 인터뷰!



Q. 어제 하루 동안 지내면서 학교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처음에는 유명하고 좋은 학교니까 규칙이 엄격할 줄만 알았는데, 엄격하기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KSA는 공부만 하는 학교일 줄 알았는데, 도우미들이 생각보다 잘 놀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공재형, 이서준

Q. 어젯밤 클럽 공연은 어땠나요?

A. 클럽 공연이 다른 행사보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클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이 학교에 오게 된다면 다른 클럽들도 알아보고 싶어요.

Q. 체육대회를 하면서 도우미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나요?

A. 도우미 분들이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분위기도 재미있게 해주셔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Q. 주제탐구활동은 어떤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어땠나요?

A.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활동을 했는데,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전등을 만들었어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Q. 대항전 때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물건 가져오기 게임, 퀴즈 맞히기(년센스 퀴즈), 후라이팬 게임 등이 있었어요.



최효석, 최우영, 김도형

Q. 클럽대항전 때 재밌었다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A. 후라이팬 게임이었어요. 후라이팬 게임을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Q. 지금까지 일정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A1. 주제탐구활동이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보조배터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A2. 연구프로젝트 구두발표가 인상이 깊었어요. KSASF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오랜 기간 준비한 활동이기 때문에 기억에 더 남았어요.

A3. 대항전이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생활 조를 만났을 때는 어색했는데, 대항전을 통해서 서로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Q. 지금까지 느낀 KSASF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A1. 맛있고, 재밌고, 유익한 일정.

A2.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캠프.